

한·중 청소년, 체육으로 우호 증진

청소년스포츠교류전, 31일까지 전주 일원서
배드민턴·농구·탁구 등 3개 종목 펼쳐져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전북에서 체육교류로 우의를 다진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간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이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꿈나무 선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양국의 체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체육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총 3개 종목이 펼쳐지며, 약 160명(한국 80명·중국 80명)이 합동훈련과 연습 경기, 공식경기 등을 치르게 된다. 농구는 전주교과부설초에서 배드민턴은 전주생명과학고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 체육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곳곳을 돌며 문화탐방의 시간도 갖는다.

특히 도 체육회는 이번 교류전 기간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환영연은 26일 오후6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리고 환송연은 30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양국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는 우정을 전북에서 다지게 된다"며 "선수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류전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중 스포츠 교류는 총 2차례(초청·파견)로 진행되며, 오는 11월에는 한국 선수단이 중국으로 떠나 우호 관계를 강화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현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사무엘 호사 영입

'스피드 축구' 조세 모라이스 감독 전술에 최적화

프로축구 K리그(1부 리그) 전북 현대가 김승대에 이어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사무엘 호사를 영입하며 김신욱의 공백을 메운다.



사무엘 호사는 "아시아 최고의 리그인 K리그와 최강의 팀 전북에서 뛰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리그와 팀에 하루 빨리 적응해 나의 강점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싶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로 거듭나고 전북 우승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최근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 이적한 김신욱을 대체할 자원으로 김승대, 호사를 영입했다. 울산 현대에 다득점에서 앞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전북은 31일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3라운드를 갖는다. /뉴스

테니스 꿈나무들 '집합' ... 6일간의 열전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창서 개최
남녀 12세부·14세부 단체전 등 벌어



순창군은 '2019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경기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전국 종합 체육대회로 알려져 있다.

'2019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경기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경기는 순창군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코트 22면과 순창 제일고 코트 8면에서 남·여 12세부와 14세부 단체전, 개인단식 경기로 열린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전국 종합 체육대회로, 순창에서 열리는 테니스 종목 대회에는 600여 명의 선수단, 심판, 지도자 등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뒤는 기량을 펼친다. 여기에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경기를 보러 학부모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교보생명이 체육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985년에 첫 대회를 열어 올해까지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꿈나무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3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성인으로 성장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만 350명에 이르며, 이들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수만 해도 150여 개가 족히 넘을 정도로 엘리트 스포츠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는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성만골이나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군은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유치가 성공했다. 더욱이 경기내내 선수단과 학부모 등 많은 인원이 대거 찾

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교보생명 관계자와 초등테니스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순창 대회 유치의 당위성 설명 등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이 될 꿈나무들이 편안하게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에 노력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3일간 꿈나무 테니스 선수들이 순창에서 하계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태권도 성지로 '제2의 도약'

31일 태권도원 상징지구 상량식
현 22% 공정률 내년 12월 준공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감도
2020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자 중심지로써 그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 상징지구 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며 "재단은 상징지구 조성을 비롯해 국내외 태권도 진흥 및 보급 등 중차대한 태권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인들의 중심지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태권도원 상징지구 상량식' (이하 상량식)을 가진다. 상량식은 7월 31일 오전 11시에 태권도원 상징지구 내 태권전에서 진행된다. 상량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량식은 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이를 기념해 공사와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밀봉해 상량에 올리는 의식이다. 이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총면적 1455㎡ 한옥 형태로 건립되는 태권도원 상징지구는 태권전과 명인관으로 구성된다. 태권전(363㎡)에서는 태권도인들의 수련을 비롯해 고단자와 일반인들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명인관(1092㎡)은 고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공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전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태권도원 상징지구는 2017년 12월, 건립에 필요한 176억 원의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어 기초 및 석재 공사와 목재 조립 등을 거쳐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